



"죄송합니다"와 올림픽 금메달 정신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여름올림픽이 열렸다. 흔히 올림픽을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祝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감흥은 예전만 못하다. 언제부터

인가 연례행사인 것처럼 그냥 때가 되면 텔레비전 앞에서 보는 등 마는 등 시간을 죽이곤 한다. 왜 똑같은 경기를 지상파 방송사에서 동시에 중계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병우와 THAAD 사태를 잊고 박근혜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는 뜻인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마냥 국민들 모두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선수들 응원이나 하라는 뜻일까?

왜 "죄송합니다"인가?

남자 10미터 공기권총 경기에서 5위를 차지한 진종오 선수가 기자회견을 "죄송합니다"로 대신하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 생각난다.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대회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정상을 지켜온 선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경기에서 진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준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여자배구 선수들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경기에서 부진했던 박정아 선수는 십자포화같은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왜 그들은 죄송한 것일까? 왜 석고대죄를 하듯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소위 세계 랭킹에 비추어 선수들의 기대치를 매긴다. 성적이 기대치를 웃돌거나 금메달을 따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다. 그 기대치에 못미치면 그 격차만큼 비난이 쏟아진다. 기대치가 금메달인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면 반역을 도모한 죄인 취급을 받는다. 기대치와 경기 결과가 메달과 상관없는 선수들은 아예 주목을 받지도 못한다. 필명 "버락킴너의길을가라"는 지난 8월 10일 "금메달을 획득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 호명되며 추앙받지만, 패배하는 순간 그들은 버려진 사생아(?)쯤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과 국민에 실망감을 안긴 죄인 그 극단적 위치를 오가야 하는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라고 적었다(<http://www.ziksir.com/ziksir/view/3564>).

금메달 정신줄과 올림픽 현장

결국은 메달이다. 그것도 금메달이다. 종합순위를 따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은메달이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무슨 수를 쓰든 금메달을 따고 붙일 일이다. 공을 차든, 뽀박질을 하든, 해업을 치든, 철봉에 매달리든, 골프공을 치든 상관없다. 아마도 방귀뀌기나 눈알 굴리기에서 일등을 해도 환호할 것이다. 하다못해 도둑질이나 성추행을 잘해서 금메달을 땀도 해도 환장들을 할 것이다. 이러니 출산을 최저, 자살을 최고, 입양아 수출 최고 등은 금

메달만 받는다면 국가의 자랑으로 내세울 판이다. "금메달 정신줄"이다. 금메달병이다. 무슨 짓을 해서든 금메달만 따면 그만이라는 것 아닌가.

현대 올림픽은 19세기 말 쿠베르탱(Coubertin)이 주창하여 시작되었다.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은 올림픽이 즐겁게 힘쓰는 것, 좋은 교육적 가치, 보편적인 기본 윤리원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존중을 추구한다고 했다("Blending sport with culture and education, Olympism seeks to create a way of life based on the joy of effort, the educational value of good exampl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universal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올림픽 정신은 상호 이해, 우정, 결속, 깨끗한 경기를 강조한다("... in the Olympic spirit, which requires mutual understanding with a spirit of friendship, solidarity and fair play.").

과연 금메달 정신줄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경기에 임하고 우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가? 선수들이 상호 결속을 다지고 깨끗한 경기를 하게끔 하는가? 경기에서 지거나 메달을 따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듯 죄송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우정, 상호 이해, 결속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고서는 영웅이 될 수 없고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정신줄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와 윤리원칙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신체, 의지, 마음을 고양하고 균형있게 묶어내는 삶의 철학("Olympism is a philosophy of life, exalting and combining in a balanced whole the qualities of body, will and mind.")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행여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Citius, Altius, Fortius)라는 올림픽 표어가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금메달 정신줄을 강요한 것은 아닐까?

3D운동과 금메달 정신줄

3S는 Sex, Screen, Sports를 말한다. 흔히 나쁜 정권이 일반 국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권장하는 것이다(이문영 1991: 97). 백성들이 현실과 정치를 깨닫고 판단하지 못하게끔 관심을 돌리려는 공작이다. 매일매일 닳치는 일상과 이웃에 관심을 끊고 공공집회에는 걸음을 끊는다. 벗고 짙고 보는 일에 몰두하고, 영화관에 몰려가고, 경기장의 응원물결에 휩쓸린다. 카지노와 (화상) 경마장이 주 택가까지 스며든다. 길거리와 인터넷에서 복권과 노름이 독버섯처럼 자란다. 백성들은 성실한 삶을 포기하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환상과 도박에 빠지게 된다. 바로 독재자가 원하는 상황이다.

독재정권은 정치정당성이 없다는 열등감을 끝까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덮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만한 일을 찾는다. GNP를 올리는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같은 큰 토목사업을 일으킨다. 무언가 손에 잡히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바벨탑"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이다. 또 민족과 국가의 우월성과 자긍심을 드높인다는 선전에 열을 올린다.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백성들을 세뇌하려는 것이다. 이런 공작에는 스포츠 경기가 제격이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프로 야구, 축구, 씨름을 출범시키고, 88올림픽을 강행한 것이 대표사례이다.

금메달 정신줄,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 국가주의는 3S의 한 축이다. (1) 체력은 국력이라면서 백성들을 동원한다. 시간에 맞춰 온 백성들을 줄세워 국민체조를 하도록 강요한다. (2) 경기 성적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올림픽 종합 순위가 민족의 우수성 순위이고 국력 순위가 된다(버락킴너의길을가라 2016). 올림픽 10위를 내세우는 이유가 이것이다. (3) 따라서 경기를 개인이 아닌 국가의 일로 치환한다. 스포츠는 국가사업이 되고 소위 "엘리트 스포

즈”를 지향한다. 선수 개인의 영광이 국가의 영광으로 둔갑된다.

이번 올림픽에서 박근혜 정권은 금메달 10개, 종합 10위를 목표로 내세웠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출하여 선수들을 훈련시킨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수확해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국위를 선양하여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 강조한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축전을 보낸다. 민족의 우월성과 국가의 힘을 과시했으니 얼마나 통치자가 흥이 났을 것인가?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영웅으로 추앙되고 온갖 혜택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와 김정은 정권은 다를 바 없다. 박정희, 김일성, 전두환, 노태우, 김정일 정권 모두 이런 금메달 정신줄로 백성들을 현혹해왔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과 민족과 국가는 사실 통치자 자신일 뿐이다. 우월성과 자긍심은 금메달이라는 마약이 그려낸 환영이다.

이러한 금메달 정신줄은 올림픽 현장을 거스르고 있다. 올림픽 현장 제 1장 6조 1항은 올림픽 경기가 개인이나 집단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The Olympic Games are competitions between athletes in individual or team events and not between countries.”).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시상식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국가가 걸리고 국가가 연주된다.

금메달 정신줄의 정치경제

이러한 금메달 정신줄에서 올림픽의 기본원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구촌 축전이지만 선수들은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 결과에 목매 수 밖에 없다. 결과에 따라 영웅과 죄인이 결정되고, 특혜와 무관심이 갈리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따내면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주어지지만, 실패하면 아무 것도 손에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포상금과 연금이 달린 문제이니 죽기 살기로 금메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깨끗한 경기가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 비열한 반칙과 행위는 잠깐이고 금메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선수라기보다는 금메달을 생산하는 기계에 가깝다. 인간이기보다는 금메달을 물어오는 사냥개에 가깝다. 자의든 타의든 사생활을 잃고 불타오르는 애국심과 사생결단할 각오로 금메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기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고 지면 패장으로 목을 내뱉어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금메달 정신줄을 가진 단체와 국가가 선수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금메달이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수를 선발하고 과격에 가까운 지원을 해준다.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를 선택하여 빼먹는 식이다. 전투를 하듯이 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듯이 경기를 하도록 선수들을 다그친다. 군사작전을 전개하듯이 자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선수들을 다달한다. 독재정권일수록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으로 조바심을 가진다. 짧은 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사냥해 온 선수들에게 넉넉한 보상을 던져주고, 금메달은 단물이다 빠질 때까지 밤낮으로 울궂여준다.

금메달에 사로잡힌 백성들도 흥겨운 마음으로 축전을 구경하기 어렵다. 이기고 지느냐에 몰두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즐기기가 어렵다. 손에 땀을 쥐는 경기라는 표현은 승패에 목을 건다는 뜻이다.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염원할 뿐이다. 이긴 쪽에서는 잔치집이 되고 진 쪽은 초상집이 되는 판이니 어찌 숨돌릴 째이 있겠는가. 승리한 선수는 영웅이라 부르고 온갖 찬사를 쏟아낸다. 패배한 선수 죄인으로 낙인찍고 온갖 비난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 자체가 아닌 결과에 대한 평일 뿐이다. 박정아 선수에게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배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몇 번이나 배구경기를 관람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금메달 정신줄에서는 전문가인지 문외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저 경기에서 이겼는지, 금메달을 땀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승패는 민족과 국가의 우월성과 무관하다

경기에서 승패는 피할 수 없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일상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지만 승패는 경기의 결과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기는 것이 옳고 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승패가 선수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경기 그 자체다.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우정을 쌓고, 인격을 닦고, 또 체력을 다지는 것이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선수들의 실력만이 아니다. 그 날의 날씨(비, 바람, 온도, 습도 등), 선수의 건강상태, 경기장과 장비 상태, 경기장 분위기, 심판의 판정 등이 영향을 미친다. 우연이라거나 운(random error)도 무시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치라는 것은 평균 개념이다.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사건을 말한다. 세계랭킹 1위라면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가장 크다는 말이다. 확실히 금메달을 딴다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는 예측할 수는 있어도 누가 이길 것인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승패에 대한 지나친 환호와 비난은 무지와 천박 그 자체다.

한편 인구수를 고려하면 한국의 성적은 놀랍다. 남한의 인구가 5천만명인데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1억2천만), 독일(8천만), 프랑스(7천만), 이탈리아(6천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4억명의 중국이 금메달 26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천만명당 금메달 0.19개(=26/140)인데, 한국은 1.8개(=9/5)를 획득했으니 한국이 10배 더 잘 한 셈이다. 엇그제 월드컵 축구 예선경기에서 한국이 중국을 물리쳤다. 개개인의 축구능력분포가 두 나라 모두 같다고 치면 2천 5백만명(남자축구니깐)에서 11명을 뽑고, 7억만명에서 11명을 뽑아서 경기를 벌인 결과가 “공한증”이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조선족이 한족보다 낫거나 한국이 중국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가끔씩은 안쓰럽게 생각한다. 현대 올림픽의 경기종목은 대개 서구에서 보편화된 것이고, 서구 사람들의 체격과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체형과 체력으로 봐도 한국인은 서구인에 미치지 못한다. 애초부터 올림픽은 동양인에게는 불공정한 경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맘을 아프게 한다. 금메달만 쫓는 정권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감내하는 선수들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더 크고 빠르고 힘센 경쟁자를 이기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악다구니를 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피흘리고, 이를 악무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경기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

경기는 이기고 지는 자를 가린다. 하지만 겨루는 행위 자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패에만 몰입한다면 슬픈 일이다. 하물며 승패로 선수들을 엮어매고 백성들을 호도하는 일임에랴... 겨루는 그 자체를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는 한 판 승부를 보고 싶지 않다. 사격이든 배구든 좋아하는 경기 그 자체를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경기에서 진 우리 선수들이 어깨를 떨구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진중오도, 김잔디도, 김우진도 죄송할 필요가 없다. 김연경도 박정아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최선을 다해 재주를 겨루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좀 흥하게 내지르는 김연경의 괴성도, 양효진의 얇직한 오리궁뎅이도, 실수를 연발했다는 박정아의 서브리시브도 그저 예뻐 뿐이다. 이제 그만 국가라는 짐을 내려놓으라. 승패에 목을 매는 태극전사의 투혼은 잊으라. 그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즐겁게 마음껏 펼쳐라. 그런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침대축구"를 보면서 정치 경기를 생각하다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대표단이 준결승전 진출을 놓고 온두라스 대표단과 경기를 치렀다. 경기 후반에 온두라스 선수가 공을 차넣어 0대 1로 한국 축구단이 패했다. 그런데 골을 넣은 후 온두라스 선수들이 걸핏하면 축구장에 드러눕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하여 비난을 받았다. 전력이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온두라스에게 이리 허망하게 진 것에 대해 선수와 관중이 분노했다. 이른바 “침대축구”(grassrolling)에 대해 많이 당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중동 국가와 치른 경기에서도 “침대축구”는 위력을 발휘했다. 온두라스와 중동 국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심지어는 월드컵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티가 안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영리한 전략으로서 좀 덜 미운 “침대축구”였을 뿐이다. 하지만 갈수록 “침대축구”는 적나라하고 구역질나는 양상이다. 추잡하기 그지없는 양아치짓이다. 경기 자체가 아니라 오직 이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올림픽 금메달 정신줄이다. 정말 무조건 이겨야만 맞인가?

축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2002년 미국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열린 겨울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안톤 오노 선수의 “헐리웃 액션”으로 금메달을 놓쳤다(축구에서 헐리웃 액션은 골치거리가 된지 오래다). 2014년 러시아 Sochi에서 열린 겨울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심판진의 엉터리 판정으로 은메달을 받았다. 우리나라 선수만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12개로 단번에 4위에 올라섰지만, 군부독재정권의 무리수와 치부만 드러낸 성적이었다. 특히 남자 복싱 라이트 미들급에 나서서 Roy Jones Jr.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박시현 선수는 그 참혹한 부끄러움의 정점에 있다. 한국인이 봐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3-2 판정승 아니었던가. 전두환 정권이 했던 것처럼 푸틴 정권도 체제유지를 위해 주최국의 이점을 악용하여 김연아 선수에게 횡포를 부린 것이다. 다 오십보 백보다.

탁구공을 치면서 운동하는 의미를 생각하다

언젠가 가까운 후배의 제안으로 탁구시합을 하게 되었다. 체육학과 선수출신에게 몇 달 동안 “레슨”이라는 특별교육을 받았으면서 설레발이다. 하지만 경기를 시작할 지 얼마 되지 않아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후배의 실력은 과연 “레슨”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후배의 기술은 한마디로 이기는 요령 몇가지일 뿐이었다. 특히 상대방이 치지 못할 만한 곳에 공을 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상대방과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그 후배는 그 요령조차 숙달하지 못했고, 불행하게도 그 알팍한 폼수에 넘어가지 않는 상대를 골랐다. 경기랄 것도 없는 “탁구공 치기”가 끝난 다음에 나는 왜 기본기부터 다지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것 말고 상대방과 탁구를 즐기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물었다. 상대방이 받아 치기 좋게 공을 보내면 기본기도 단련이 되고 서로 주고 받기가 길게 이어지면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치기 좋은 곳에 공을 맘대로 보낼 수 있다면 언제든 치기 어려운 곳에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 후배는 그런 사람됨과 운동의 기본을 교육받지 못하고, 그저 이기는 기법만 전수받은 셈이다. 이른바 “레슨”이라는 엉터리 프로페셔널리즘이다.

그러면서 나는 운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운동을 하는지를

자문한다. 운동이라는 것은 묘하다. 하루하루 자신을 단련하여 기량이 늘어가는 즐거움이 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희열이 있다. 우아한 발차기가 제대로 들어가고, 찬 공이 자로 켜 듯이 날아가 꽂히고, 꼭예하듯 던진 공이 그물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그런 감흥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주를 보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흥분하게 된다. 이심전심으로 감정이입이 된다.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격투기나 축구나 농구를 보는 재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응원하는 선수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하물며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에 직접 나서서 생생한 긴장과 즐거움을 몸으로 느끼는 일임에랴...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상대방과 동지의식을 느끼거나 더 친밀한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진정으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얘기다. 어쩌면 선조들도 활쏘기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나누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활쏘기는 자기 자신과 겨룬다는 점에서 선수들이 몸으로 부대끼는 격투기나 축구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인지 어느 경기에서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거나 기량이 아닌 폼수로 일관하는 선수들을 나는 남달리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이 “침대축구”를 한대도 마찬가지다. 또한 판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운 심판진과 욕설을 쏟아내고, 술병을 던지고, 경기장에 난입하는 난동꾼도 곱게 보아 주지 못한다. 모두 경기를 망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 승리감을 누릴 권리가 없는 자들이고 아예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경기를 즐길 만한 감정이 안되는 뒷골목 잡배들이다.

축구 경기의 주인인 관중이다

“침대축구”를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축구일까? 과연 잔디밭에 드러눕는 선수들이 문제일까? 심판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객석에서 축구를 구경하는 관중들 탓일까? 그러면서 나는 답답하기만 한 정치 상황을 연상하게 된다.

축구경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먼저 양쪽 선수들이 있고,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진이 있다. 방송으로 경기를 중계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 끝으로 경기를 보러 오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는 관중이 있다. 축구는 관중과 시청자들이 내는 돈(광고 포함)으로 운영이 된다. 양쪽 선수들이 기량을 닦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한다. 심판진도 규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불편부당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해설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관중(시청자)은 그런 멋진 경기를 즐기면서 댓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결국 축구경기의 수요자는 관중이며, 축구경기는 그들을 위해 열려야 한다.

그런데 선수들이 기량을 닦지 않고 잔재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 “동네축구”와 “뽕축구”와 “헛발질 축구”를 누가 즐기겠는가? 기량과 경험은 있으나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남용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침대축구”든 “헐리웃 액션”이든 선수들이 요령만 피운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심판의 눈을 속여 상대방을 걷어 차고, 팔꿈치로 찌고, 시비를 걸어 화나게 하고, 손으로 공을 잡고, 반칙을 당했다며 뺨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실력이 부족한데도 안간힘을 쓰면서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은 그나마 애처로움이라도 있다. 재능을 다 가진 자가 쓸데없이 공을 돌려 시간을 끌거나 거짓으로 상대방과 심판진을 속이는 모습은 역겨움 그 자체다. 하물며 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일임에랴...

또 심판진이 대놓고 한쪽 편을 들어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정을 내리면 경기는 난장판이 되기 십상이다. 심판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범위를 벗어난 판정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침대축구”는 심판의 의지라도 쉽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아프다고 드러누웠으니 바로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고를 주고, 추가 시간에는 “침대축구”로 지연된 시간의 세 배를 더 주는 관행을 도

입한다. 한편 쓸데없이 양쪽 선수를 자극하고, 물리력으로 경기를 방해하는 관중도 구역질나게 한다. 한번 잘 했다고 영웅으로 치켜 세웠다가 헛발질 한번에 역적으로 몰아붙이는 순진함은 그나마 양반이다.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거나 경기장에 들어가는 부류는 경기는 물론이려니와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악당들이다.

이 모두가 스포츠 자본주의나 상업화된 프로 스포츠의 정치경제학이다.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도록 격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경쟁을 통해 이기는 경기를 강요한다. 기량에 따라 선수의 품값이 매겨지고 승부에 따라 몸값이 정해지면서 놀이의 규칙(rules of a game)이 달라진 것이다. 축구가 관중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돈을 위한 경기가 된 것이다. 멋진 경기가 아니라 이기는 경기가 환영받는다. 관중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승리를 해서 돈을 챙기는 것이 “장맹”인 세상이 된 것이다. 각종 스포츠 관련 복권도 이런 돈잔치를 부추긴다. 갈수록 선수도, 심판도, 관중도 운동경기가 주는 참된 맛을 잊고 그저 돈을 바라볼 뿐이다.

정치 경기의 주인은 백성이다

이런 면에서 축구 경기는 민주주의 정치 경기와 비슷하다. 경기장은 의회나 국회다. 양쪽 선수들은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책을 갖고 다투는 의회에서 경쟁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민다. 심판진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해당한다.¹ 당 과정에서 벗어나 합리성을 따져 일을 추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정치를 논평하며 여론을 이끈다. 축구에서 관중이 있다면 정치에서는 백성이 있다. 그들이 대표들을 뽑아 의회로 보내고 세금을 내어 선수와 심판진을 먹여살린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경기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정치 경기는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일단 선수들의 기량이 편차가 큰 가운데 수준 미달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의 배경과 이해관계가 백성들과는 거리가 멀다. 세금을 떼어먹고, 군복무를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전문 지식은 커녕 일반 상식도 갖추지 못한 자들도 적지 않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 나름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것을 조리있게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자가 드물다. 허구헌날 “뺑축구”에 “헛발질”이니 백성들이 볼 때도 그저 딱하고 안쓰러울 뿐이다.

개중에 말이나 좀 하는 부류들은 잔머리를 굴려 상대를 속이고 골려먹는 술수를 부린다.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누명을 씌우고, “헛리웃 액션”으로 국면을 뒤바꾸고 “침대축구”(필리밥스터)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 기량이 준수하고 멀쩡한 의원도 이런 판에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당선이 급하고 공천이 포도청이니 쉰 놈 편에 줄을 대고 건달들 마냥 패거리질을 한다. 멋진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껏 펼칠 수가 없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고 땀이 잡고 아귀다툼을 하는 삼류 “동네축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정부 관료들은 정과를 떠나서 합리성에 따라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가 여당편을 들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 경기는 망가지게 된다.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든, 여당이 대통령의 등에 올라타 채찍질을 하든 정치 경기가 벌어지는 의회는 개판이 된다. 여당이 다수가 되면 행정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뭐라 하든 일당 독재를 강행할 것이고, 야당이 다수가 되면 여당과 행정부는 구석에 몰려 발버둥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멀쩡한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재정권은 의원들을 줄세워 통제할 뿐만 아니라 관료들을 줄세워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강요한다. 여당이 아무리 반칙을 해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야당

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어도 노란딱지와 빨간 딱지를 아끼지 않는다.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겁박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심판의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면 유언비어 유포나 빨갱이라고 몰아붙인다. 또한 여당과 야당이 졸전을 거듭하면서 정부관료제를 견제하지 못하면 관료의 독재로 이어진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논리가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의 논리가 있는 법인데, 그 구분이 없이 승자가 독식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정치가 백성들의 위한 경기인 만큼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도 백성이다. 하지만 백성들도 정치 경기에 제 몫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서 정치라는 말만 나오면 욱부터 내뱉으면서 미주알 고주알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다. 축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 경기가 잘 안풀리면 터무니없이 선수를 헐난하고 감독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선수가 그렇게 쉬운 골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감독이 용병술이 없다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으라고 악다구니를 쓴다. 자신은 공을 몰고가는 것도 골대 안으로 차넣는 것도 형편없으면서 선수값을 하라며 다그친다. 토론회는 공청회는 눈썹만한 관심도 두지 않고 투표장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저주한다. 주인이, 주권자가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이자 누워 침뱉기다.

또한 예산은 먼저 빼먹는 놈이 임차라며 공직자들에게 이런 저런 압력을 넣는 사람도 있고,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도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모임에 가서 정치인에게 밥과 술을 얻어 먹고 선물을 받는 것은 차라리 순진하다.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외치는 구호가 무슨 뜻인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드물게는 용팔이 사건처럼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깡통을 던지거나 운동장으로 내려가 난동을 부리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정치를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이다. 나쁜 정치가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혐오를 가중시키고 정치관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담당한다.

경제라는 경기도 비슷하다. 경제라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다. 심판은 정부(입법, 사법, 행정부) 혹은 시민사회이다. 경제를 지켜보면서 즐기는 관중은 소비자들이다. 하지만 “갑질”로 표현되는 대기업의 횡포는 경제라는 운동장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프로 선수와 초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침대축구”든 “헛리웃 액션”이든 대기업의 전유물이다. 약육강식 논리 그대로다. 이런 불공정한 경기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바다에 플랑크톤이 없으면 멸치도 없고 조기도 없는 것처럼(2008: 675),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위태롭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공생을 외치지만 그때 뿐이고 “갑질”은 쭉 계속된다.

주인인 관중과 백성이 하기 나름이다

축구나 정치에서 추잡한 반칙, “침대축구,” “헛리웃 액션”을 뿌리뽑으려면 관중과 백성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경기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관중과 백성의 수준이 경기와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백성들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영악한 머슴을 제대로 부리려면 주인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행동해야 한다. 말하자면 주인값을 해야 한다.

관중이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하듯이, 백성도 정치 결과에 상심하지 말고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공부하고 생각한 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반칙왕을 퇴출시켜야 한다. 신중하게 토론을 지켜보고, 공청회에 참석하고, 투표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머슴들이 주인을 알보지 않는다. 또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후원금도 내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주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¹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심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가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 선수들은 여당과 야당이고 불편부당해야 하는 심판은 행정부에 가깝다.